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KBS 사극 名家 제작현장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서와 서찰,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복에 공들여 붙인 수염. 수원KBS드라마제작센터 <명가> 세트장에는 조선시대의 여러 양반가의 방 안과 집무실 등 다양한 모습을 정갈하게 재연해 놓았다. 시선이 멈춘 곳은 단이 방. 모진 옥살이로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는 한단이 (한고은), 그 옆에 일선이가 간호를 하고 최국선(차인표)이 의원을 모시고 들어온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단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국선. 그 누구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깊은 고요함이 흐른다.

名家



KBS <명가>는 가진 혹독한 어려움을 딛고 300년간 부자 가문으로서의 명망을 지켜 온 경주 최씨의 이야기다. 최씨 가문이 명가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병자호란의 발발로 집안의 기둥인 최진립(김영철)이 전사하고, 위기에 빠진 집안을 손자 최국선이 구해내며 완성한다. 젊은 시절에는 한양에서 장사를 통해 집안을 구명하려 했으나, 차후 깨달음을 얻어 본가로 내려가 손수 논과 밭을 누비어 가문을 구하고, 조선 후기 농업 발전과 상업에도 큰 성공을 거둔다. <명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서민에게 베푼 부자'를 소재로 다뤘으며, 오늘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우리의 삶에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지혜롭게 제시한다. <명가>는 최국선의 이루어 질 수 없는 연인이자 동지인 한단이의 창조와 공명점으로 양반이 되었지만 입신양명의 한계에 부딪혀 좌절을 맛보는 김원일(김성민)을 그의 연적으로 만들어 내어 지속적인 긴장감을 자아낸다. 자신들의 이상을 향해 노력해가는 세 남녀의 인생이 얹히며 재미와 교훈을 준다.



리허설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애절한 감정표현이나,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정해진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명가> 세트장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고 객기원 연출과 스태프들이 장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다. 저마다 배우와 세트를 주시하며 조명과 카메라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려가고 있다. 스태프들은 현장의 여러 상황을 빠른 손놀림으로 각자의 대본에 빼곡히 기록하느라 정신이 없다.

배우들은 연기를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 얼굴에 들어나는 표정이나 액션도 중요하지만 대사전달이 얼마나 잘 되는가도 중요하다. 특히, 사극은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으며, 긴밀하게 오래 대화하는 장면이 많아 긴 대사암기가 어려움을 준다. 오랜 연기경력으로 실수 없이 녹화가 진행되지만 녹화가 끝나는 순간 중간 중간 대본이 배우들에게 친구이며, 애인이 된다. 배우가 긴 대사에 감정을 몰입시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이어가며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연기하는 듯 뿌듯함이 밀려온다.



겨울은 흰 눈과 함께 추위를 가져다준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덧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순간이 있다. 이를 못보고 지나간다면 시청자들은 '옥에 티'라는 이름으로 그 작품을 벌한다. 시청자들은 천리안으로 흡사 매의 날카로운 눈매를 닮았다. 사극에서는 현대의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추위에 떨며 내복에 티셔츠까지 겹겹이 입은 상태로 촬영하다보면 카메라 너머로 조금씩 스쳐지나간다. 이를 재빨리 잡아내어 옷 매무새를 바로 잡고 촬영에 들어간다. 야외촬영에서는 주위의 전선, 표지판, 송신탑 등 사극에는 감춰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연출의 '컷' 사인은 계속되고, 영상, 음향, 조명까지 드라마의 높은 완성도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드라마 현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대본 리딩에 리허설을 거쳐, 오랜 시간 분장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녹화가 강행된다. 피곤한 하루의 일과다. 50여명의 인원이 장면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협업하여 사람 내면의 감성을 영상으로 뽑아낸다.





名家

방송인들에게는 진한 커피향 같은 열정이 느껴진다. 제작을 하다보면 재정적 압박, 시청률, 시청자의 시선 등 많은 부담 요소들이 산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지탱하고 내일 또 다시 세트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건 이들의 몸 안에 불타고 있는 열정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명가> 제작진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